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주요 특징과 코로나19 이후 동향

2022.1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김용재 과장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심영섭 과장, 송수혁 조사역

# 차 례

## 〈요 약〉

<b>I. 검토 배경</b> .....	<b>1</b>
<b>II.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주요 특징</b> .....	<b>3</b>
1. 자영업자수 증가 .....	3
2. 사업 규모의 영세성 .....	4
3. 높은 고령자영업자 비중 .....	5
4. 전통서비스업에 집중 .....	6
<b>III. 코로나19 이후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동향</b> .....	<b>7</b>
1. 업황 개선 지연 .....	7
2. 창업률 증가 및 폐업률 감소 .....	8
3. 자영업자 대출의 빠른 증가세 .....	11
<b>IV.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b> .....	<b>14</b>
1. 종합평가 .....	14
2. 향후 과제 .....	15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주요 특징과 코로나19 이후 동향(요약)

### I.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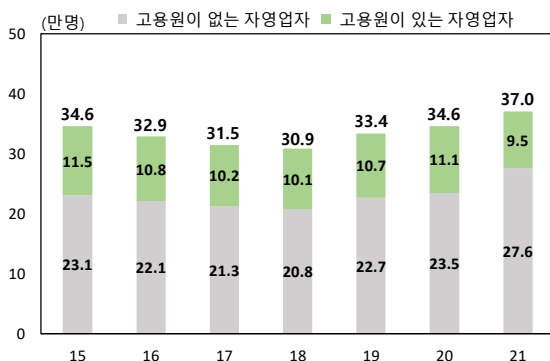
- 2019년말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음
  -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등의 생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
- ⇒ 이에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코로나19 이후 업황 및 대출 동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지역 자영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II.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주요 특징

#### 1. 자영업자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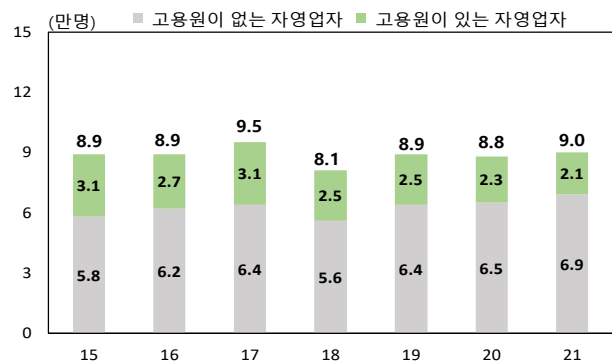
- 2021년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수는 각각 37.0만명, 9.0만명으로 2018년을 저점으로 증가하는 모습
  - 이와 같은 자영업자수 증가는 두 지역 모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가 주도

부산지역 자영업자수<sup>1)</sup> 추이



주: 1) 연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울산지역 자영업자수<sup>1)</su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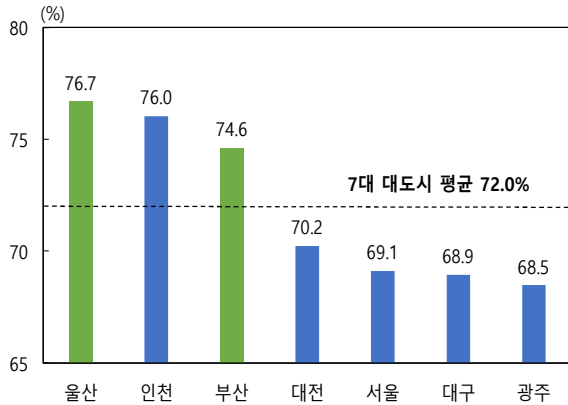
주: 1) 연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 사업규모의 영세성

□ 부산·울산지역은 타 대도시에 비해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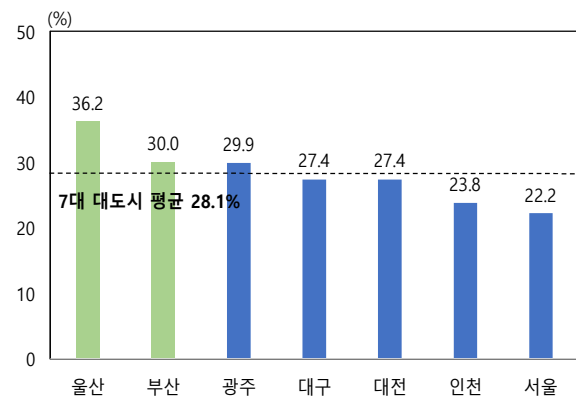
- 부산·울산지역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개 대도시중 3위, 1위이며,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비중도 2위, 1위를 기록

**지역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sup>1)</sup>**



주: 1) 2021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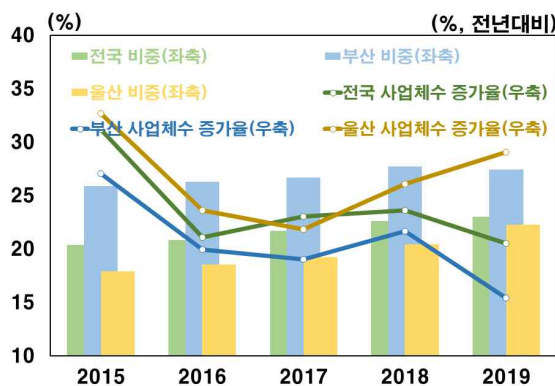
주: 1) 2019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 3. 높은 고령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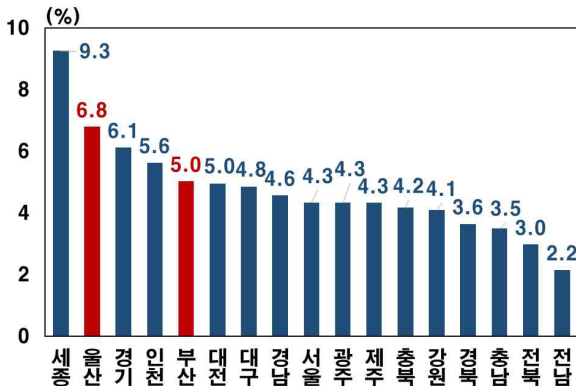
□ 부산·울산지역의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개인사업체수(2019년 기준) 비중도 26.3%(부산·울산 합산 기준)로 전국(23.0%)에 비하여 높은 모습

- 두 지역 인구의 빠른 고령화, 고령자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수 증가율 및 비중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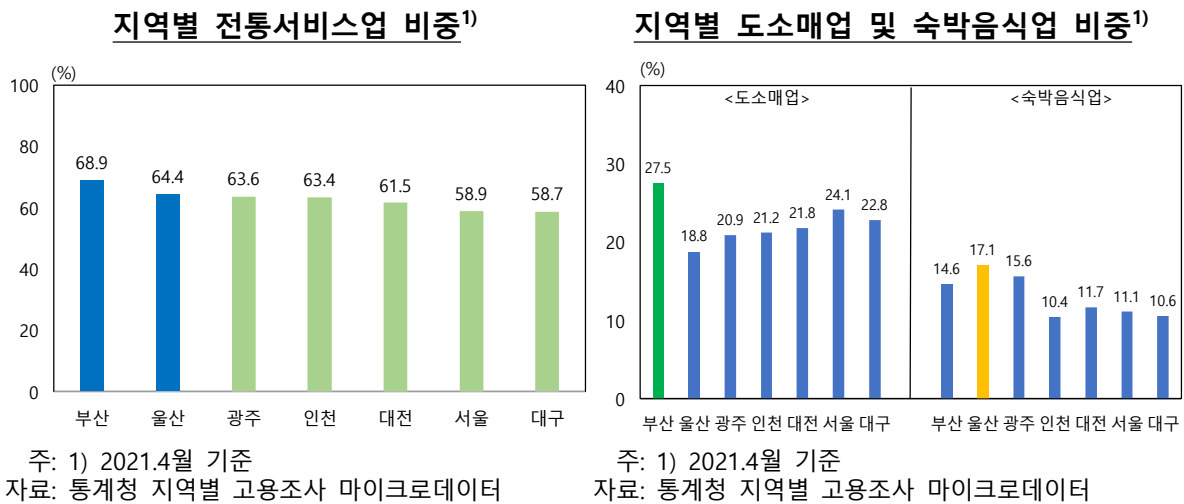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1) 2015년~19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 4. 전통서비스업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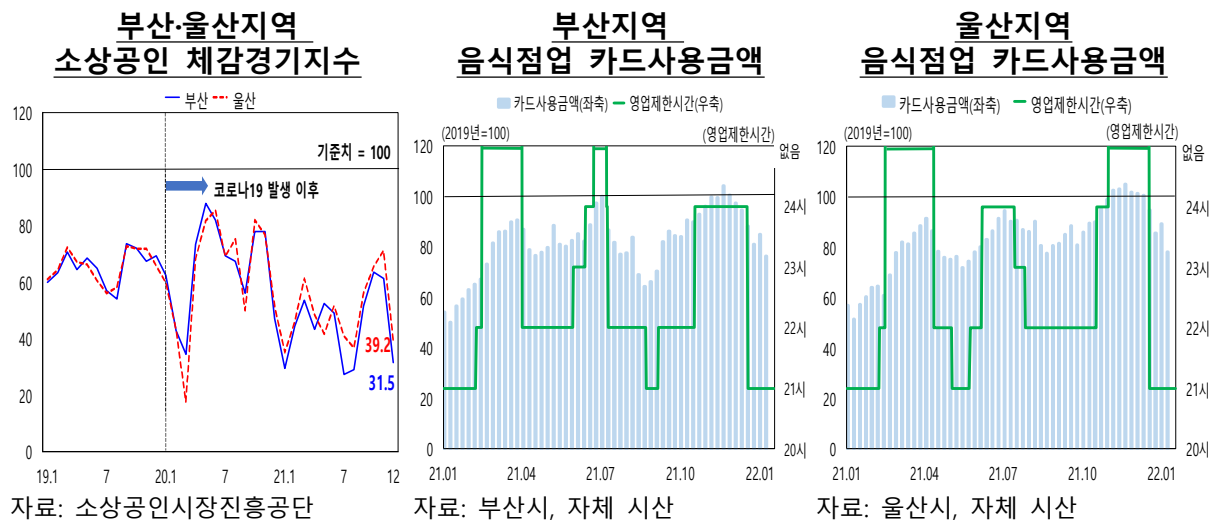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은 전통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68.9%, 64.4%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7대 대도시 중 1, 2위를 차지
- 전통서비스업 내에서는 두 지역에서 모두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Ⅲ. 코로나19 이후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동향

#### 1. 업황 개선 지연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업황은 2021년중 개선이 지연되는 모습
- 부산·울산지역 모두 2021년중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대체로 위기 이전 수준(2019년 평균)을 하회
- 업황이 부진한 데에는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의 강도 변화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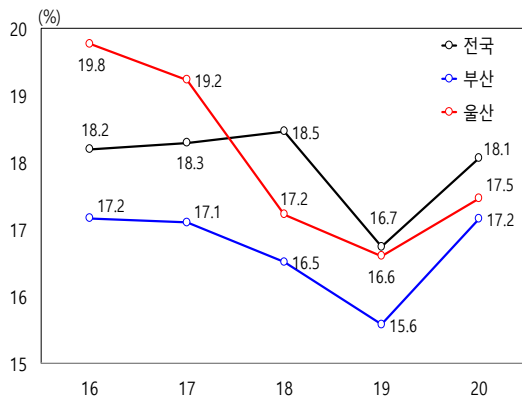


## 2. 창업률 증가 및 폐업률 감소

□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지역의 자영업 창업은 증가하였으며, 폐업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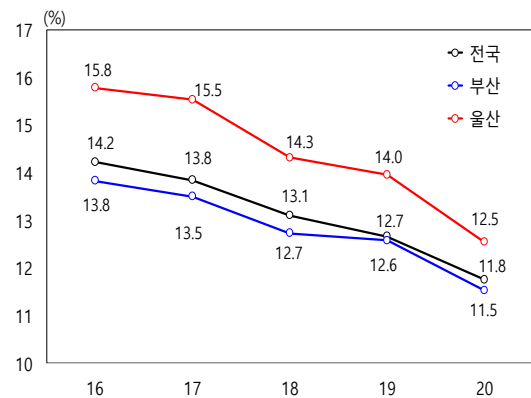
- 2020년 부산·울산지역 창업률은 각각 17.2%, 17.5%로 2019년(부산 15.6%, 울산 16.6%)에 비해 증가하였고, 폐업률은 부산(11.5%), 울산(12.5%) 모두 2019년(12.6%, 14.0%) 대비 감소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 창업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 폐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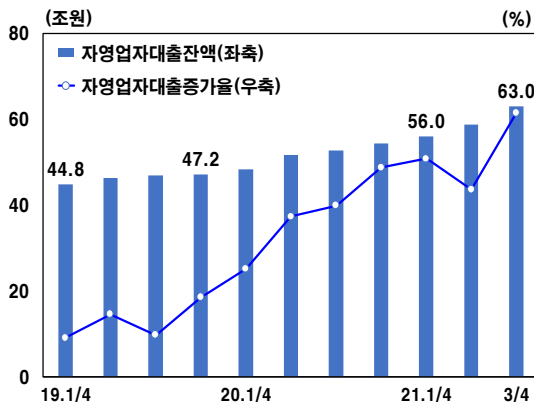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3. 자영업자 대출의 빠른 증가세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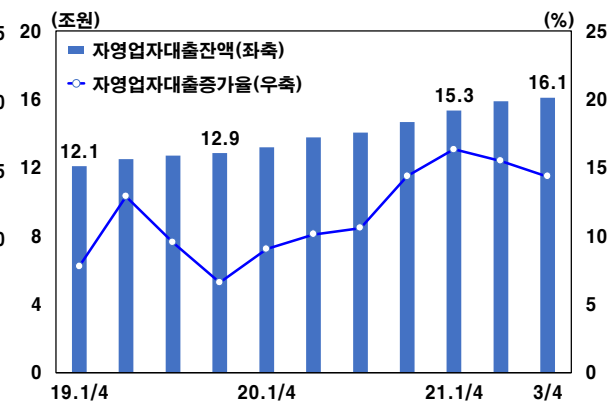
-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0.1/4분기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높은 대출 증가율을 나타냄

부산지역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울산지역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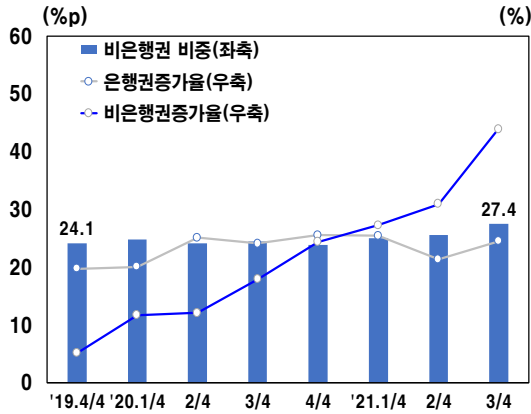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 최근 두 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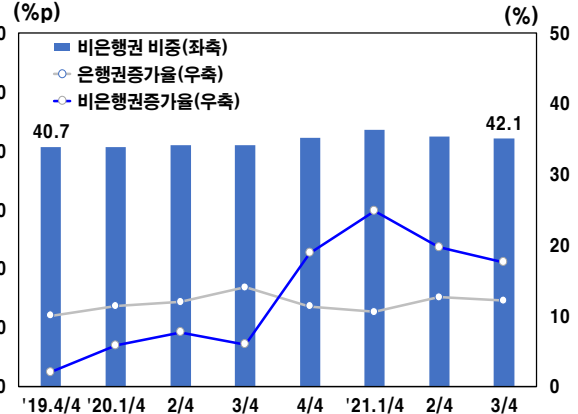
- 부산지역은 2021.1/4분기 이후, 울산지역은 2020.4/4분기 이후 비은행권 대출증가율이 은행권 대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부산지역 비은행권 대출 비중 및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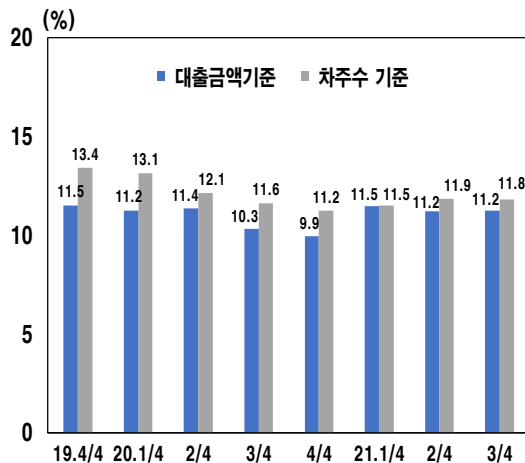
**울산지역 비은행권 대출 비중 및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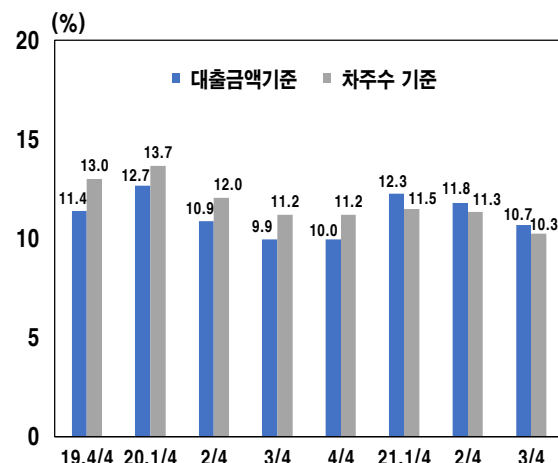
- 자영업 업황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은 대출잔액과 차주수 기준 모두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낮은 수준

**부산지역 취약차주 비중**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울산지역 취약차주 비중**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 IV.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은 최근 새롭게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취약점이 상존
  - 영세하고 고령인 자영업자는 주로 대면 중심의 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비대면소비, 디지털화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이에 지자체가 온라인 판로 개척,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에 소비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산·울산지역의 자영업 업황은 소비 부진 및 매출 감소 등으로 부진한 상태
  -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 조치 지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대출건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
  -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자영업자 대출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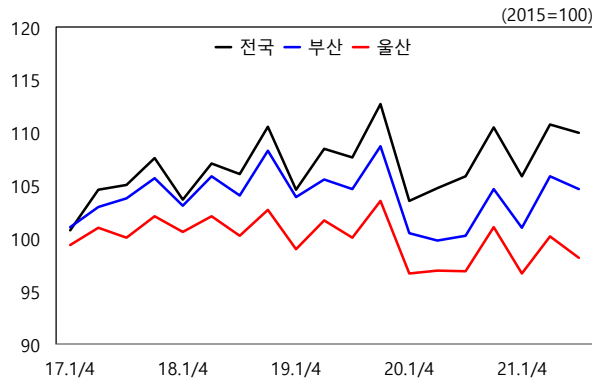
I

## 검토 배경

- 2019년말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음
  -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등의 생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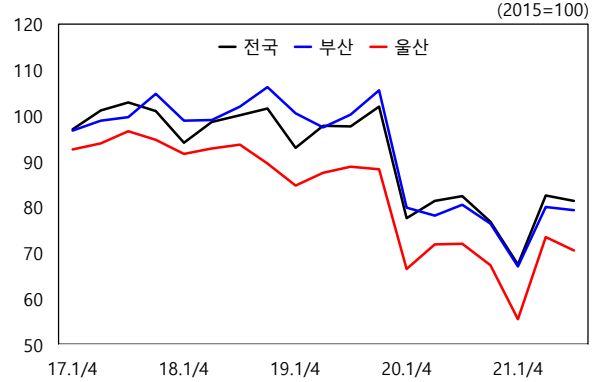
\* <참고 1> “자영업 및 자영업자의 정의” 참조

### 지역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지역별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의 매출 감소가 누적되고 고용률 하락에 따른 자영업 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 향후 자영업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실물경제 및 금융 부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 이에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코로나19 이후 업황 및 대출 동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지역 자영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참고 1>

**자영업 및 자영업자의 정의**

- 자영업이란 일반적으로 1인 또는 가족이 소유·경영의 주체가 되는 사업을 의미하며, 자영업자란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별로 목적에 따라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여러 명칭으로 관리
  - (자영업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고용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개인사업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중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개인사업자) 국세청 「국세통계」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의 합계
  -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기업

**부산·울산지역의 자영업자 현황<sup>1)2)</sup>**

	자영업자(만명)	개인사업체(만개)	개인사업자(만명)	소상공인(만개)
전국	556.0	327.7	756.5	290.2
부산	36.8 (6.6)	23.4 (7.2)	47.1 (6.2)	20.5 (7.1)
울산	9.0 (1.6)	7.1 (2.2)	13.7 (1.8)	6.2 (2.1)

주: 1) 자영업자는 '21.11월, 개인사업체는 '19년,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20년 기준  
 2) ( )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국세청(국세통계), 중기부(소상공인실태조사)

- 본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자 통계를, 자영업체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개인사업체 통계를, 창업 및 폐업 현황은 국세청 개인사업자 통계를, 매출액 규모별 자영업자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통계를 각각 이용

## II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주요 특징

### 1 자영업자수 증가

□ 2021년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수\*는 각각 37.0만명, 9.0만명으로 2018년 을 저점(부산 30.9만명, 울산 8.1만명)으로 증가한 모습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부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8~21년중 6.1만명 증가
- 울산은 2019년 큰 폭(+0.8만명)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면서 2018~21년중 0.9만명 증가

□ 이와 같은 자영업자수 증가는 두 지역 모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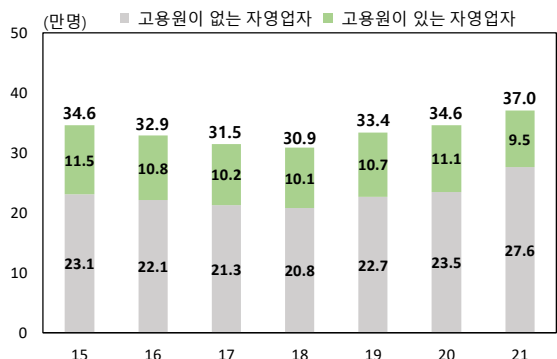
- 부산지역은 2018~21년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0.6만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8만명 증가
- 울산지역도 동일기간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0.4만명 감소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3만명 증가

— 부산·울산지역의 2018~21년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은 각각 32.7%, 23.2%로 7대 대도시 중 각각 1, 2위를 기록

\* 7대 대도시의 2018~21년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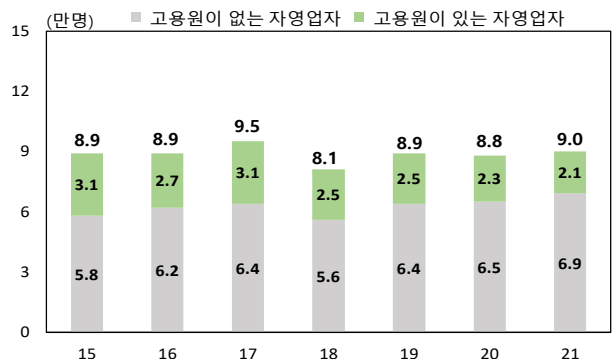
부산	울산	인천	대전	서울	광주	대구
32.7	23.2	14.3	3.1	0.9	-1.9	-11.3

부산지역 자영업자수<sup>1)</sup> 추이



주: 1) 연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울산지역 자영업자수<sup>1)</su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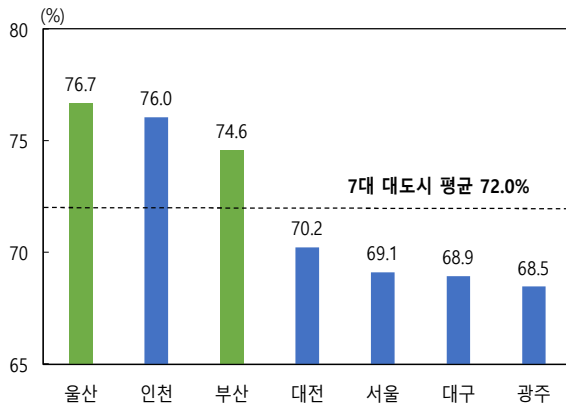


주: 1) 연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 사업 규모의 영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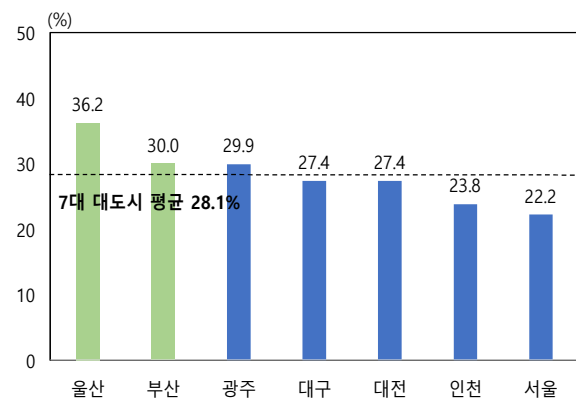
- 부산·울산지역은 타 대도시에 비해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 중 상대적으로 영세\*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기준 각각 74.6%, 76.7%로 7개 대도시 중 3위, 1위를 차지
    -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621만원, '19년 기준)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936만원)의 약 21% 수준에 그치며 매출 규모가 영세함을 시사(「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2021.6월)
  - 매출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산·울산지역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의 비중(2019년 기준)은 각각 30.0%, 36.2%로 7대 대도시 중 2위, 1위를 기록

지역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sup>1)</sup>



주: 1) 2021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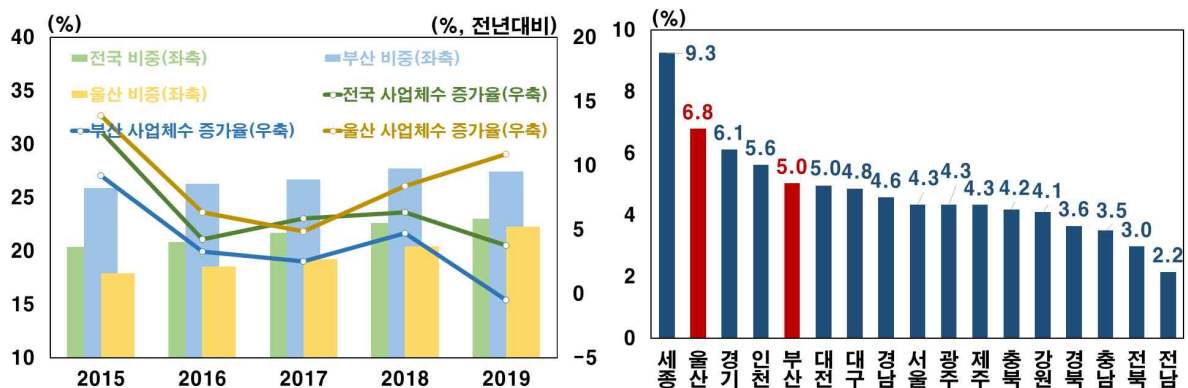


주: 1) 2019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 3 높은 고령자영업자 비중

- 부산·울산지역은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개인사업체수(2019년 기준)의 비중이 26.3%로 전국(23.0%)에 비하여 높은 모습
  - 부산의 고령자영업자 비중은 27.1%로 전국에 비해 높고, 특히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의 고령자영업자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음\*
    - \* 전국은 도·소매업이 22.6%, 숙박·음식업이 22.1%인데 반해 부산은 도·소매업이 25.4% 숙박·음식업이 23.6%(19년 기준)
  - 울산은 고령자영업자 비중이 22.3%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빠른 속도로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음
    - \* 울산은 증가 속도가 7.6%(2015~19년 연평균 증가율)로 전국(5.1%)보다 빠른 모습
- 두 지역 인구의 빠른 고령화, 고령자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부산은 지난 2021.9월에 7개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울산은 2015~20년중 고령인구 증가율(주민등록인구 기준)이 연평균 6.8%로 세종특별자치시(9.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국 평균(4.6%)을 크게 상회
    - \*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
  -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의 창업동기는 '생계유지'가 43.1%를 차지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2020년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1월)
    - \* 20대 20.5%, 30대 26.6%, 40대 31.1%, 50대 36.8%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수 증가율 및 비중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sup>1)</sup>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1) 2015년~19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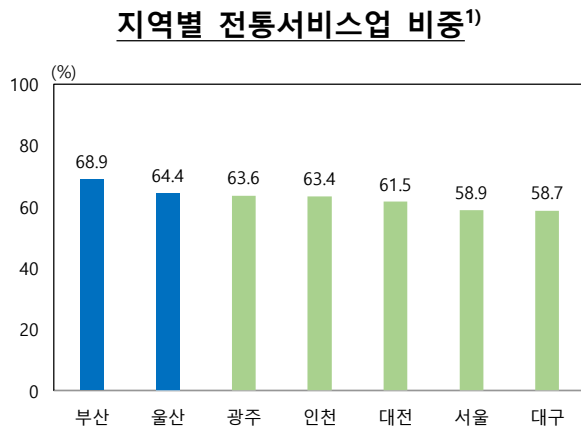
## 4 전통서비스업에 집중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은 전통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68.9%, 64.4%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7대 대도시 중 1, 2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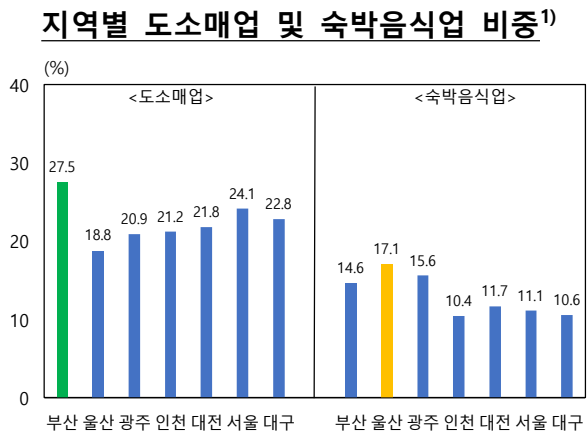
\*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한국은행, 2006.8월)을 참고하여 금융, 의료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제외한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을 전통서비스업으로 분류

○ 전통서비스업 내에서는 두 지역에서 모두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부산지역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7대 대도시 중 가장 높게, 울산 지역은 숙박·음식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 1) 2021.4월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주: 1) 2021.4월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III

### 코로나19 이후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동향

1

#### 업황 개선 지연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업황은 2021년중 개선이 지연되는 모습

○ 부산·울산지역 모두 2021년중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대체로 위기 이전 수준(2019년 평균)을 하회

— 2021.10~11월중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업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12월중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재차 하락

\* 정부는 2021.11.1일부터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확대(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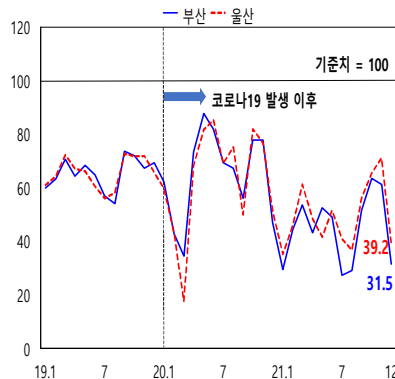
\*\* 사적모임인원 4인으로 제한, 음식점 영업시간(21시) 제한 등(12.18일)

○ 이처럼 지난해 업황이 부진한 데에는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의 강도 변화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지난해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수록 음식점 카드매출이 늘어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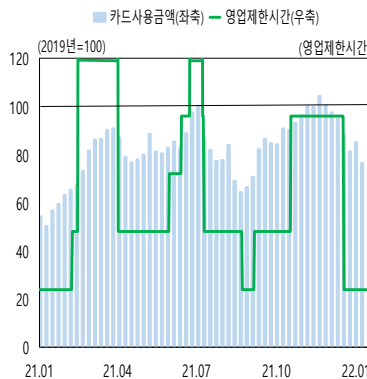
\* 2019년중 부산·울산 각 지역의 음식점 카드사용금액(1주 평균)을 100으로 하여 2021년중 각 주별 음식점 카드사용금액을 지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 부산·울산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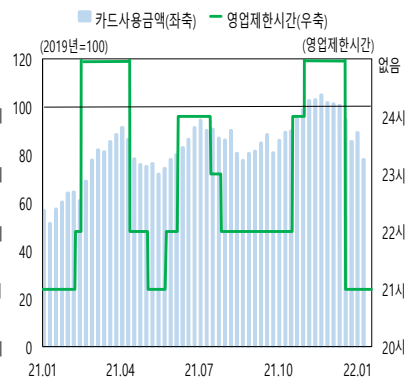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부산지역 음식점업 카드사용금액



자료: 부산시, 자체 시산

#### 울산지역 음식점업 카드사용금액



자료: 울산시, 자체 시산

## 2 창업률 증가 및 폐업률 감소

□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지역의 자영업 창업은 증가하였으며, 폐업은 감소하였음

- 2020년 부산·울산지역 창업률\*은 각각 17.2%, 17.5%로 2019년(부산 15.6%, 울산 16.6%)에 비해 증가

\* 당해연도 신규 개인사업자수 ÷ 당해연도말 개인사업자수

- 폐업률\*은 부산(11.5%), 울산(12.5%) 모두 2019년(12.6%, 14.0%) 대비 감소

\* 당해연도 폐업 개인사업자수 ÷ 전년도말 개인사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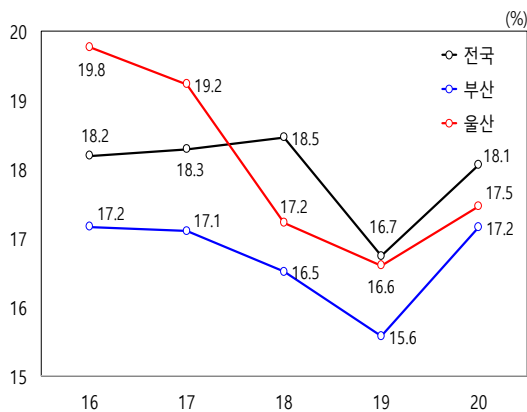
— 두 지역 모두 2020년중 신규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으며, 폐업자는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지역별 신규 개인사업자 및 폐업 개인사업자 수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신규사업자)	부산	6.8	7.1	7.1	6.9	8.1
	울산	2.3	2.3	2.2	2.2	2.4
(폐업자)	부산	5.4	5.4	5.3	5.4	5.1
	울산	1.8	1.8	1.8	1.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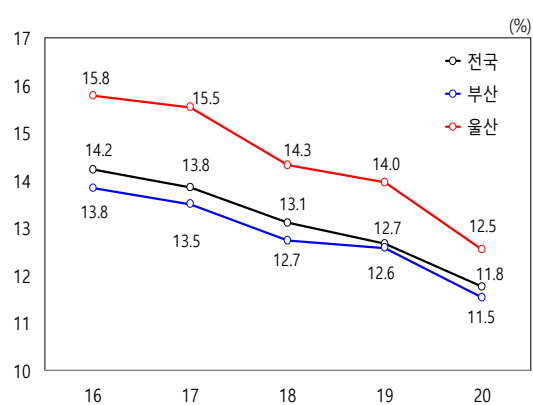
(만명)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 창업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 폐업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창업률을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일반사업자는 201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증가하며 영세자영업자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을 시사

\*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반면 폐업률은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모두 감소

**사업자 유형별 창업률·폐업률 변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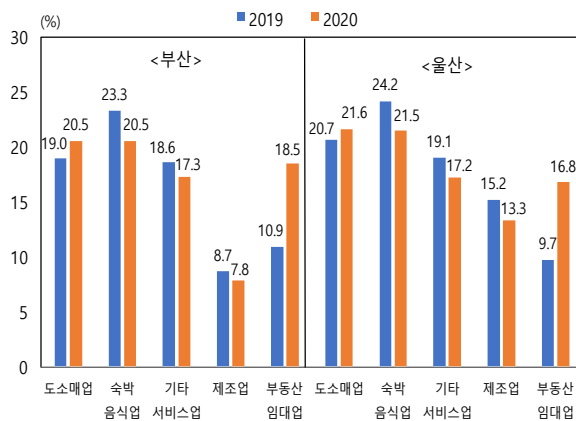
(%, %p)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19(A)	'20(B)	B-A	'19(A)	'20(B)	B-A
(창업률)	부산	14.3	14.0	[-0.3]	18.6	20.2	[+1.6]
	울산	15.2	14.7	[-0.5]	18.7	19.2	[+0.5]
(폐업률)	부산	12.2	10.7	[-1.5]	14.6	13.5	[-1.1]
	울산	13.6	11.9	[-1.7]	15.5	13.9	[-1.6]

주: 1) [ ]은 2019년 대비 2020년 창업률 및 폐업률 증감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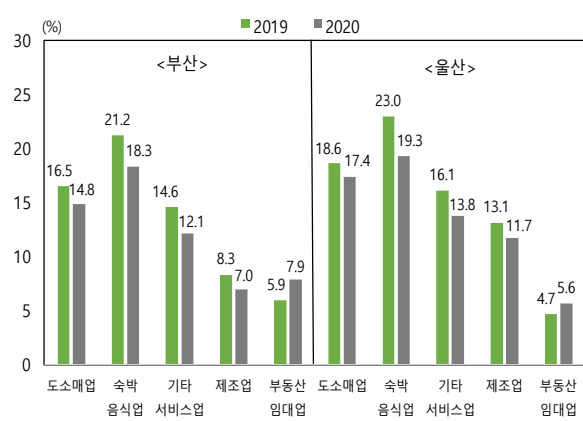
- 업종별 창업률은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증가한 반면 숙박·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감소하였으며, 폐업률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

**부산·울산지역 업종별 창업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부산·울산지역 업종별 폐업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연령별 창업률\***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의 창업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연령별 창업률 = 당해연도 연령별 신규 개인사업자수 ÷ 당해연도말 연령별 개인사업자수

○ **폐업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가운데 60세 이상의 하락 폭이 작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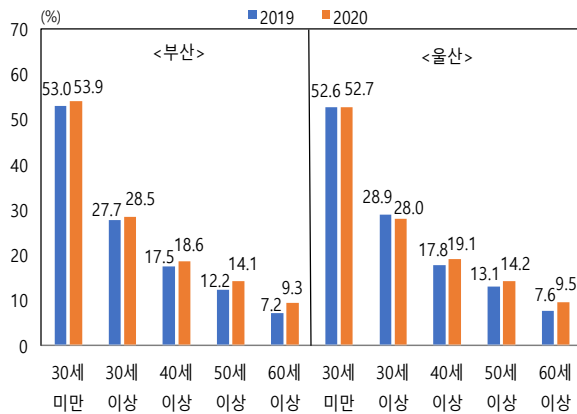
\* 연령별 폐업률 = 당해연도 연령별 폐업 개인사업자수 ÷ 전년도말 연령별 개인사업자수

**연령대별 창업률 및 폐업률 증감폭<sup>1)</sup>**

	(%p)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b>(창업률)</b>					
부산	+0.9	+0.8	+1.1	+1.9	<b>+2.1</b>
울산	+0.1	-0.9	+1.3	+1.1	<b>+1.9</b>
<b>(폐업률)</b>					
부산	-1.4	-1.9	-1.3	-0.9	<b>-0.5</b>
울산	-1.9	-2.3	-1.4	-1.3	<b>-0.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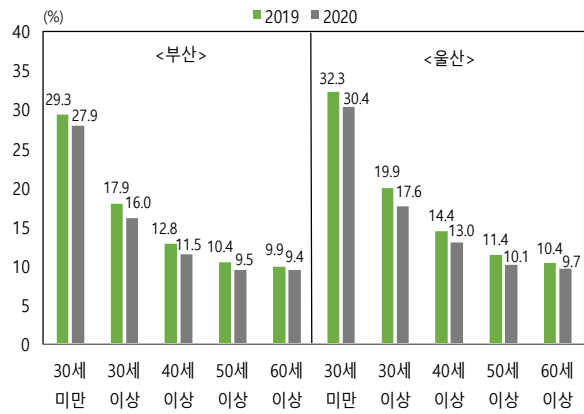
주: 1) 2020년 창·폐업률 - 2019년 창·폐업률

**부산·울산지역 연령별 창업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부산·울산지역 연령별 폐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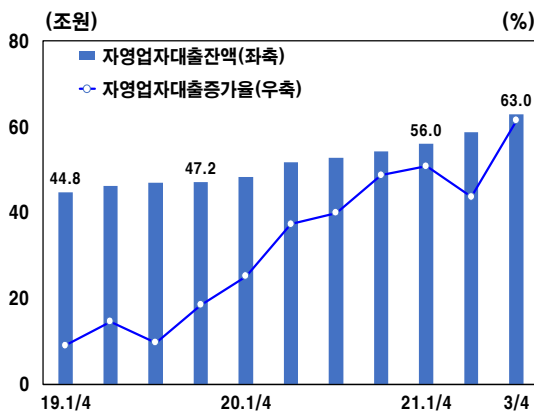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3 자영업자 대출의 빠른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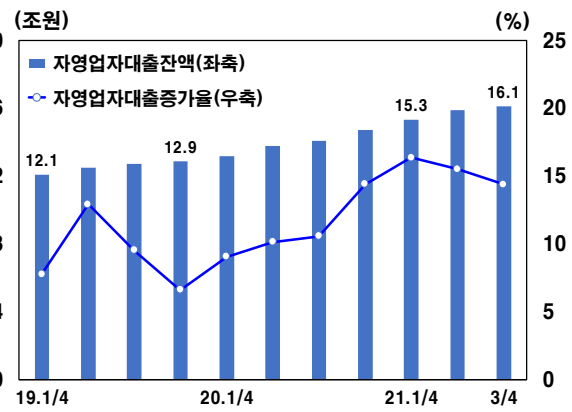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 지속
  - 2021.9월말 기준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각각 63.0조원, 16.1조원으로 2019년말 대비 33.5%, 25.3% 증가
  -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0.1/4분기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높은 대출 증가율을 나타냄
    - 부산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2020.1/4~2021.3/4분기중 평균 증가율은 13.7%로 코로나19 발생 전(19년중 4.1%)에 비해 큰 폭 상승
    - 울산지역도 동 기간중 평균 12.9% 증가하며 2019년(9.2%)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

부산지역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울산지역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 최근 두 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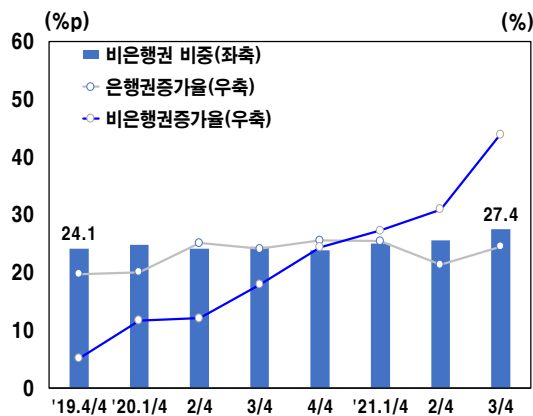
- 부산지역은 2021.1/4분기 이후, 울산지역은 2020.4/4분기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은행권 대출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책자금 공급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은행권 자금공급이 제한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남

\* 정부는 2020.11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2020.11.13일)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일)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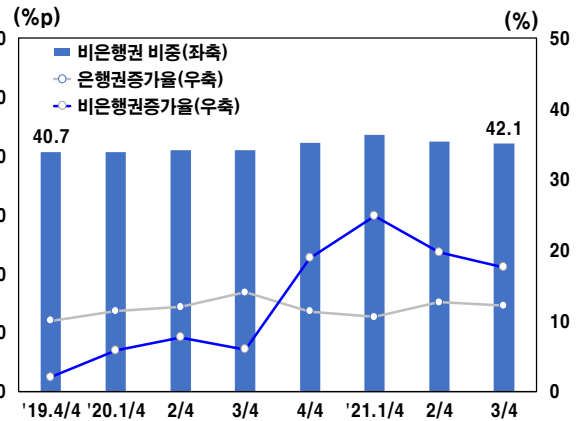
- 이에 자영업자 대출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산은 24.1%(19.4/4분기말)에서 27.4%(21.3/4분기말)로, 울산은 동기간중 40.7%에서 42.1%로 증가

부산지역 비은행권 대출 비중 및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울산지역 비은행권 대출 비중 및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 자영업 업황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으로 감소

\*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주)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사람들

○ 2021.3/4분기말 기준 부산·울산지역의 취약차주 비중은 대출잔액과 차주수 기준 모두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낮은 수준**

○ 정부는 2020.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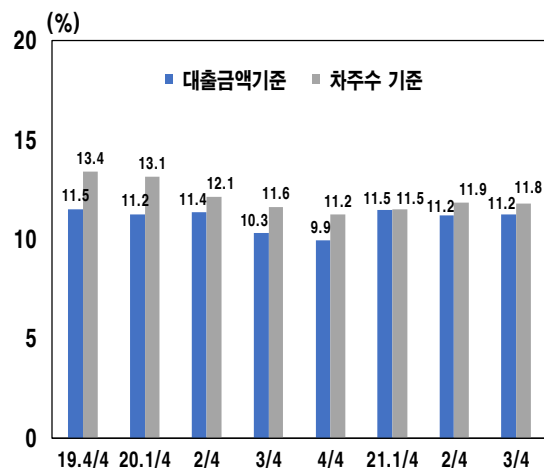
\* 만기 및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은 3차례 연장되어 2022.3월말까지 연장된 상태임

— 이러한 조치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21.1/4분기 0.24%→ 3/4분기 0.19%, 전국 기준)이 **하락**하고 **저신용\*** 차주수 비중이 감소(부산 ‘19.4/4분기말 8.5% → ‘21.3/4분기말 5.5%, 울산 7.8% → 4.5%)하면서, **취약차주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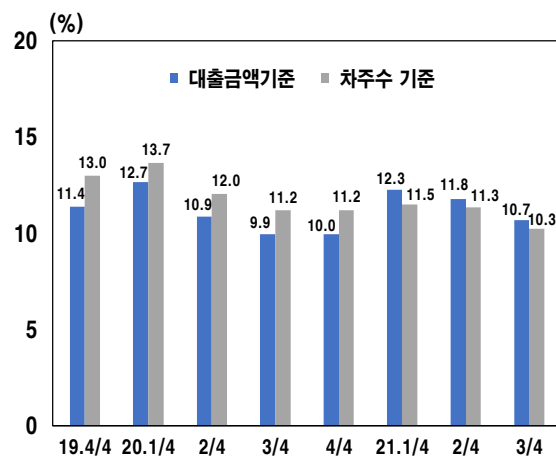
\*\* 자영업자의 신용등급 결정시 연체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나 원리금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연체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저신용 차주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이에 주로 기인하여 취약차주 비중도 하락(「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6월)

**부산지역 취약차주 비중**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울산지역 취약차주 비중**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 IV

###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 1

#### 종합평가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은 최근 새롭게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취약점이 상존
  - 영세하고 고령인 자영업자는 주로 대면 중심의 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비대면소비, 디지털화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산·울산지역의 자영업 업황은 소비 부진 및 매출 감소 등으로 부진한 상태
  - 업황이 부진한 상태에서 창업은 증가하고 폐업은 감소하면서 자영업자 간의 경쟁 심화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
- 부산·울산지역의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취약차주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하지 않는 등 부실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원금 및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

2

향후 과제

가.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어려운 고령 및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을 것임

○ 전국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1년중 총 174.6조원으로 '19년대비 41.0%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소매 판매액의 37.1%를 차지

\* 해당연도의 1~11월중 거래액의 합산 금액

—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도 2021년 23.2조원으로 '19년대비 167.8% 증가

○ 부산·울산지역의 자영업자는 관련 지식의 부족 등으로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발표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실태조사 보고서」(2021.3월)에 따르면 응답한 소상공인의 91.6%가 온라인 판로가 없다고 답했으며, 이중 온라인 판로 확대가 필요하지만 어렵고 복잡해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7.3%, 시간 및 인력 부족하다는 응답이 17.2%로 나타났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판로 개척,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해당 플랫폼이 지역 소비자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참고 2> “부산·울산지역 공공배달앱 추진 현황” 참조

○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시장 확대에 대한 대응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

<참고 2>

### 부산·울산지역 공공배달앱 추진 현황

- **(부산: 동백통)** 부산시는 민간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의 정식서비스를 2022.1.19일부터 시작
  - 부산시는 가입비·광고비·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동백통 가맹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동백통에서 동백전으로 결제시 민간주문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울산: 울산페달)**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민간배달앱 이용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2021.3.9일부터 울산지역 공공배달앱 '울산페달' 서비스를 개시
  - 울산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수수료가 없으며, 울산페이가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가 수수료가 부과
  - 울산페이 가맹점이 43,000여곳에 달해 울산페달 가맹점도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가맹점수는 2,500여곳(22.1.19일 기준)에 불과한 상황
- 지역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에 비해 소비자 및 가맹점주들의 낮은 인지도, 서비스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없거나 민간배달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책정하고 있어, 향후 거래금액이 증가할 경우 캐시백 제공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향후 과제



## 나.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

-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 조치 지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은 계속되며 **자영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입은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는 입장
    - 재정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지원이 필요

## 다. 소비유입 활성화 방안 강구

- 부산·울산지역 자영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은 대면서비스 중심인 만큼 온라인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에 소비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각종 **참여형 행사**를 발굴하는 한편, 해당 행사가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역 내의 관광명소,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별도로 선정하여 방문 시 도장이나 QR인증으로 기록한 후 경품을 지급하는 방안\*과 같이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변화된 소비 수요에 대응
      - \* <참고 3> “부산·울산지역의 소비유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사례” 참조
    - 유튜브를 활용한 여행vlog 제작이나 유명 여행 유튜버를 섭외하여 지역 내 알려지지 않은 관광명소를 발굴·홍보
  - 관광객들이 **부·울·경** 권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도 고려해 볼 필요

<참고 3>

### 부산·울산지역의 소비유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사례

#### (부산행 프로모션 행사)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해 부산행 KTX 승차권을 최대 50%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2021.12.7 일~22일까지 진행하였음
  - 부산역 및 구포역으로 도착하는 열차를 예매한 후에 일정 인증절차를 거치면 편도운임의 50%를 환급
  - 동백전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관광객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

#### (울주군 은화 마케팅)

- 울주군은 2019년부터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9개의 봉우리를 모두 오르면 31g(65,000원 상당)의 은화를 증정하는 마케팅을 실시
  - 2021년중 완등 인증자가 3만 2,000여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1만명을 크게 넘어섰으며, 특히 도전자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 거주민으로 알려져 지역 내 소비유입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기대
  - 울주군은 등산객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정책을 연계할 예정

## 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및 지원방안 마련

-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대출건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
  -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고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크므로 연체율 등 대출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 또한 현재로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장기화될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
-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자영업자 대출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
  - 향후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 위험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산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

## < 참고 문헌 >

배정민(2019), “대구지역 자영업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 대구본부

임영주·김경호(2019), “최근 울산지역 자영업 동향”, 한국은행 울산본부

김영웅(2020),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김주영·오지윤(2020), “경기지역 자영업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경기본부

이인로·박수연·이다연(2020), “코로나19 이후 대전충남지역 소비행태 변화 분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보현·임종혁·(2021), “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지역 소비행태 변화 분석”,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김용재·주세준(2021), “부산, 7개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한국은행 부산본부

김재영(2021),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주요 특징 및 향후 과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정민·유각준(2021),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차준열·조수현(2021),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산단계별 소비변동의 주요 특징”,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연구원(2021), “코로나19 이후 부산 자영업자 변화 분석”

한국개발연구원(2021),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부채 리스크 평가와 관리방안”